

“용산 참사, 정부는 참회하라”



한국불교총연합회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는 1월 23일 오전 11시 서울 한강로 참사현장에서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박재환 기자

용산 철거민 시위현장에서 진압 강행으로 6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정부에 대해 불교계의 규탄이 잇따르고 있다.

불교인권위와 불교평화연대는 1월 21일 성명을 통해 “과거 전두환 정권을 연상케 하는 비인권정권은

공개참회하고, 국민에게도 용서를 구하라”고 규탄했다.

실천불교승가회(공동의장 효림, 성관)도 1월 21일 성명을 통해 “야만성과 독재적 발상으로 참사를 일으킨 정부 관계자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미국내 반출 문화재 반환 희망적”

문화재환수위, 미국방문 결과 기자간담회 개최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7만 5000여 점 가운데 미국에만 1만 9000여 점의 문화재가 있다. 보스턴 미술관 소장 ‘금은제라마탑형사리구’와 콜럼비아대가 소장한 ‘조선 왕실의례’ 등이 대표적인 예. 민간 단체로는 처음 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환수위원회(대표 백창기 중앙신도회 명예회장 이하 환수위가 1월 7~15일 미국을 방문해 반출문화재 반환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귀국했다.

환수위는 1월 19일 조계종 중앙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방문 성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행사에서 부두원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재 반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스턴 미술관과 버크 컬렉션 등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확인해 반환요청을 했다”며 “대부분 소장처가 우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환수위가 미국 방문을 통해 확인한 문화재는 개성 화장사 또는 양주 회암사 것으로 추정되는 금은제라마탑형사리구(보스턴 박물관 소장)를 비롯해, 회암사에 있었던 ‘석가삼존도’(버크 컬렉션), ‘조선왕실의례’ 문헌 다수(콜럼비아대 소장), 고

려청자·조선편자 등 핸드슨 컬렉션 물품(하버드대 아서 세클러 박물관) 등이다.

권두안 부회장(회암사유물반환추진위)은 “이번 방문을 통해 환수위는 (예를 들을 통해) 소장처에 금은제라마탑형사리구와 석가삼존도는 한국 불자들의 성물(聖物)임을 각인 시켰다”며 “금은제라마탑형사리구와 입수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문화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반환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수구 사무국장(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본부)은 “반출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유통 경로 등을 밝혀 부당하게 반출됐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사무국장은 “현재 금은제라마탑형사리구의 경우 보스턴 박물관 측은 입수경위 등에 문제가 없다면, 도덕적 법률적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상근 사무총장(조계종 중앙신도회)은 “해의 반출된 문화재 상당수가 불교문화재로 불교계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며 “종단을 대신해 중앙신도회가 환수위를 상설기구화해 문화재의 실질적 반환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軍, 취미로 신심 UP!

방공포병여단 호국감천사, 정우 스님 초청법회

1월 18일 공군 제1방공포병여단과 방공포병학교가 있는 대구 호국감천사(주지 여정 법사)에는 이른 아침부터 불자들이 붐비고 장병들이 가득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초청법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 정우 스님은 불자인 고경환 대령(공군 제1방공포병여단장)의 영접 하에 페트리아트를 견학하고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비가 내리는 곳엔 날씨에도 양산에서 산골 방공포대까지 정우 스님이 방문한 까닭은 무엇일까?

호국 감천사는 총정 이날 방공포병과 방공포교육생 행을 담당하기 위해 2005년 건립됐다. 방공포병·장교라면 한번쯤 거쳐 가는 중요한 위치임에도 대부분 군법당이 그러하다 시작은 열악했다. 26억원을 들여 건립한 교회와 비교되는 보라매 공군법당에서 뜬은 4000만원 판별 건물이 감천사의 출발이었다. 하지만 감천사는 주지 여정 법사와 강경회, 관음회 등 후원회의 일치단결한 신심이 있었다.

현재 감천사는 국제포교사 2명, 포교사 4명 등 현역군인 포교사를 6명이나 보유한 ‘포교사양성소’다. 현역장교들이 군포교를 돕기에 포교력 배가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차기 금강화장인 정재권 소령(여단 헌병대장) 등 간부 3명도 2월 중 포교사교사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통도사 성지순례를 병행하는 등 신심 활동도 열심이다. ‘너무 넓고 싶다’고 요청하는 신심을 정우 스님은 외면할 순 없었던 것이다. 신도들의 신심을 군장병들에게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좌)과 여정 법사를 비롯한 감천사 신도들은 이날 군법당 중성을 발원하고 또 발원했다.

지 전역시킨 이는 젊은 여정 강건욱 법사(26)였다. 여정 법사는 장병일장에서 법회를 운영했다. 장병들이 편하게 웃고 즐길 수 있도록 발당 밴드 부 BOA(Band·Buddhist of AirDefense)를 만들고, 불교관련 영화와 다큐를 활용했다. 매일 개회한 찬불가와 유행가를 함께 부르는 합창법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1회 감천한마음축제’는 지역주민과 장병 120명이 함께 어울린 한마당이었다.

이주호 상병(1여단 보급대, 22)은 “예전 장병들 사이에 불교는 인기가 없었으나, 재미있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불자들이 늘었습니다. 형같은 법사님과 모두 함께 법당에서 어울리다 돌아가면 생활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장병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부내내 종교인으로서 신도수가 우세하게 나왔을 정도라고 한 신도는 귀뜸한다.

여정 법사는 “교회나 성당같이 엄청난 규모의 설비가 없어도 군장병들이 좋아할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장병들이 불교에 호감을 갖고, 제대 후 생활을 다시 찾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죠”라고 말한다.

최근 다음카페와 공군 인트라넷을 통해서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감천사. 젊은 군법당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전법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 작은 군법당 호국 감천사의 신행을 보면 군포교의 미래가 어느 때보다 희망차게 보인다.

YOU! 공군과 부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한다.

군종특별교구는 공군 최초 군종병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분기 3명으로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가능하다. 자격은 신행활동 5년 이상의 대한민국 청년으로 소속사찰·군종교구장 추천서가 필요하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국방부, “상무부대에 법당 마련”

이상희 국방부장관, 군종교구 대담서 밝혀

이전하는 국군체육부대(이하 상무)에 교회만 신축하기로 해 불교계의 반발을 산 국방부가 군종특별교구의 대담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법당 마련을 약속했다.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은 1월 14일 국방부에서 이상희 국방부장관

을 만나 논란이 됐던 상무 종교편향 사건의 해결을 촉구했다.

일면 스님은 “국군체육부대 시설 이전계획이 특정종교만의 시설 신축을 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종교평형을 고려해 불교와 천주교 종교시설도 마련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에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를 모두 고려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불교와 천주교 종교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향후 국방부 중장기 계획에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정종교 지휘관의 ‘예배 강요’와 교회건립 인력·예산전용 등 고질적인 군부대내 종교편향 해결을 위한 불교계의 관심과 대책이 절실하다. **노덕현 기자**

자비나눔으로 희망과 행복을

조계종 교구본사 사회국장 회의서 발표

2009년 극심한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소외계층에게 부처님의 자비로 희망행복을 전하는 한마당이 펼쳐진다. 조계종 사회부(사회부장 세영)는 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국교구본사 사회국장 신년회의’를 개최해 ‘자비나눔 캠페인’과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등 사회기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교구본사 사회국장 스님 16명과 군종특별교구 대표 1명이 참석했다.

‘자비나눔캠페인’ ‘한끼나누기운동’은 조계사, 봉은사 등 각 주요사찰에서 쌀과 기부금을 모으며, 3월 27일 ‘자비의 탁발’을 병행해 대국민 대중운동으로 확대된다. 4월 12일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108배 기도’가 전국사찰에서 봉행된다. 동지와 새해 첫날에는 동지팔죽, 떡국 나누기 행사도 열린다.

5월 2일 부처님 오신날까지는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달기’와 ‘자비연꽃 배지 달기 운동’이 펼쳐진다.

목표액은 20억으로 2008년 출범한 불교계 최초 전문기부재단 ‘아름다운운동’이 창구역할을 맡아 진행한다.(계좌 1000원, 02-2011-1596-7) 캠페인 이후에는 전국 87개 템플스테이 사찰에서 ‘저소득 실직가정을 위한 템플스테이’도 열린다.

날로 증가하는 외국계출생과 다문화가정에 맞춰 지원센터 개설 등 사회참여방안도 논의됐다. 전국 80여개소로 2009년 신규 40개소를 포함해 국고보조금 48억 4400만원과 지방비 21억 5600만원이 지급되는 2009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참여를 당부하는 자리 마련됐다. 이어 종교편향대응활동으로 4·19 보훈선서 종교투표소 설치 및 교구본사 배너 게재 10·27법난 피해자 접수 설명이 진행됐으며, 6월 17일 충남 공주 전통불교문화원 봉행을 내용으로 하는 ‘교구본사 사회국장 워크숍’도 논의됐다. **노덕현 기자**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승인, 갯바위도?

표충사·통도사 협의 조건부...환경단체 반발

10년간 논쟁이 되어 온 가지산도립공원 내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끝내 조건부 승인됐다. 얼음골 케이블카는 1998년부터 밀양시와 지역 기업체들이 추진했으나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좌절됐던 사업이다.

하지만 구립 3월 밀양시가 다시 공원계획변경을 신청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 동년 5월 사전 환경영향검토를 협의한데 이어 경남도립공원위원회(위원장 조윤명 행정부지사)가 1월 20일 회의에서 조건부 승인 한 것이다.

도립공원위원회는 이날 “환경훼손 방지 조치”를 하고, ‘표충사와 통도사 등 인근 사찰, 주민 등과 충분한

히 협의 할 것’의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통도사, 표충사, 환경단체,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39개 단체로 꾸려진 ‘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는 1월 20일 곧바로 성명을 내고 조건부 승인을 강도높게 규탄했다.

케이블카반대전국대책위원회는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 승인은 우리 국토의 핵심보전공간에 가해진 비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팔공산 갯바위지구 케이블카 유치 추진위원회’는 대구시 공원녹지과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1월 7일 밝힌 바 있어 승인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덕현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이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마이로봇**
물걸레 로봇청소기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KM (주)경인메카트로닉스 NAVER www.naver.com 마이로봇

www.templestay.com

니를 가슴 속 희망을 듣다
춤아 떠나는 여행

2009년의 새로운 희망이 가슴을 비춥니다.
더 따스하고, 더 기쁜 한 해일 것입니다.
올해엔 마음 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템플스테이
TEMPLESTAY

문의전화 02·2011·1970~5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